

“학당 말고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지리산 청학동 훈장’으로 방송활동을 하며 우리에게 친숙한 김봉곤(44·민족화당 훈장) 씨가 회초리 대신 영화 감독으로 메가폰을 들었다.

교육영화라는 타이틀을 건 영화 ‘훈장과 악동들’을 제작해 시사회를 갖고 있는 그는 28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시사회(29일 오후 2시)에 앞서 광주를 찾아 이번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교육이 아이들의 눈높이와 학부모의 기대에 부합할까 고민한 끝에 영화를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훈장을 하면서 100만 명을 가르치고 만났죠. 지금까지는 학생과 부모가 학당을 찾았지만, 이젠 내가 그들을 만나러 가야겠다는 생각에 영화를 만든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김씨는 직접 영화사 ‘진’ 픽처스를 설립했고 메가폰을 잡았다. 이번 영화는 카메라 3대를 동원해 촬영했으며 4개월간의 후반 편집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 다큐영화 ‘훈장과 악동들’ 감독 김봉곤 훈장

‘예절학교 선비체험’ 과정... 가족·예절·인성 강조 전국 순회 시사회, 7월 말 광주 시작으로 공식 개봉

“기왕에 만들었으니 교육영화는 흥행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보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위낭소리’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수백만 관객을 울렸던 것처럼 이번 영화도 충분히 그만큼 작품성과 재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화 제작을 위해 50여 편의 영화를 봤다는 김씨는 영화에서 그대로 훈장으로 출연하며 배우로, 때론 카메라 워킹까지 담당하는 감독으로 1인 3역을 했다.

영화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초등학교 50명이 그 훈장으로 있는 강

원도 철원의 ‘민족화당’에서 열린 14박15일간의 ‘예절학교 선비 체험 프로그램’ 전 과정을 담고 있다.

훈장과 학생들이 함께한 화중우물 ‘인간 만들기 프로젝트’를 다룬 영화는 극적 스토리가 있는 영화라기보다는 다큐멘터리가 가깝다. 한겨울 갈바람이 불고 눈이 쏟아지는 강원도 산골에서 언 손 녹여가며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올바른 가치관을 익히는 전통문화학습 과정을 영상으로 따라간다.

“아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영화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가르치는 것이 내 일이고 그 과정을 그대로 담은 것이니 어쩌면 자연스럽고 수월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는 이번 영화가 흥미나 오락을 중시하는 기존 영화와는 달리 가족의 소중함과 예절, 인성을 담은 진중한 메시지로 보이기를 바랐다.

그는 또 “대를 이어 전통을 이어가는 고지식한 사람이지만 아름다운 우리 정신문화를 창의적인 틀에 담아 퓨전 식으로 전달하고자 고민하고 있다”며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것은 잘 알지만 영화를 만든 진정성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리산 청학동을 떠나 2005년부터 철원에서 훈장을 하고 있다는 김씨는 정식으로 영화



촬영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총각 땀기머리 훈장’을 할 때인 1991년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기도 했다. 또 한국문화학교 공연예술아카데미 연기반을 수료하고 국립극장 창극단 연수단원으로 활동하는 등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져왔다.

영화는 전국을 순회하며 무료시사회를 갖고 오는 7월 말 광주를 시작으로 공식 개봉할 예정이다. 문의 02-3402-1991.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진=내평기자 mjna@kwangju.co.kr

광주국제영화제 ‘평화’로 재도약

10월 27일부터 5일간 60여 장·단편 상영
청소년·대학생 대상 연출·연기 워크샵도

지난 2001년 출범 후 우여곡절을 겪었던 광주국제영화제가 재도약을 모색하는 첫발을 내디뎠다. 광주국제영화제 조직위는 지난 27일 영화제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광주메가박스와 광주극장에서 열리는 2011 광주국제영화제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06년 이후 광주시의 지원이 끊기면서 민간 차원에서 명맥을 유지해왔던 광주국제영화제는 올해 광주시로부터 역원의 예산을 다시 지원받아 모두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행사를 꾸린다.

조직위는 영화제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한 결과 매니아층에 무게 중심을 뒀던 이전 행사와 달리 ‘평화’라는 의미를 영화 속에서 폭넓게 바라 보는 테마영화제로 성격을 바꾸 행사를 진행한다.

영화제의 중심이 될 메인 섹션은 ‘휴머니티 버전’으로 인류의 평화, 인

간의 존엄, 자연의 가치를 훌륭하게 다룬 감독들을 발굴 소개한다.

또 세계 주요 영화감독들의 신작을 소개하는 ‘월드비전’, 가족의 가치를 다룬 영화를 소개할 ‘패밀리 시네마’, 청·장년 시니어층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클래식 영화 스페셜’ 등 4개의 메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올 영화제, 주제는 ‘미소짓는 평화(Silencing peace)’로 정했으며 장편 35~40편, 단편 15~20편 등 총 60여편을 상영할 예정이다.

기획 프로그램들도 준비했다. 무등산을 비롯한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제작되는 영화들에 대한 영화 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화연출과 연기 워크샵을 진행하는 광주국제청소년 영화캠프도 연다.

또 세대와 인종, 지역을 넘어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한 영화 및 감독에게 ‘김대중노벨평화영화상’(상금 1만 달러)도 시상할 계획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맡은 영화배우 백윤식

“위축 아쉬워... 활력 불어넣겠다”

“새롭게 도약을 준비하는 광주국제영화제에 영화인으로 작으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려운 자리를 맡았습니다.”

2011 광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선임된 영화배우 백윤식은 “영화제가 광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영상 산업 발전에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윤식은 지난 2003년 광주국제영화제에 ‘지구를 지켜라’가 초청되면서 장준한 감독과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다.

“초창기 광주국제영화제를 찾았을 때 충분히 발전 가능성을 봤었는데 이후 여러가지 일로 인해 영화제가 위축된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조직위 사람들과 힘을 합쳐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TV 드라마에서 주로 활동했던 백씨는 ‘지구를 지켜라’, ‘그때 그 사람들’, ‘타짜’, ‘전우치’ 등의 영화에 출연하며 충무로에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는 임상수 감독의 영화 ‘돈의 맛’에 주인공으로 캐스팅돼 촬영을 기다리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여름방학을 더욱 신나게 해줄 ‘예술 캠프’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문화예술을 체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무료 ‘방학 예술 캠프’를 연다.

전남 전통공연진흥재단은 오는 7월 25일~29일 진도 국립남도국악원에서 가야금연주자 송해진씨와 함께 중·고등학생을 위한 국악캠프를 진행한다.

이번 국악캠프는 송해진씨의 지도를 받으며 예비 예술인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무대다. 모집기간은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학교별 공

문 접수 및 진흥재단(<http://www.ktpaf.org>) 이메일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 02-580-3143.

또 한국천연염색협회는 여름방학 동안 보성군 북내면 반석리 한국천연염색공예관에서 ‘꽃이 세상을 물들일 때-꽃물캠프’를 연다. 청소년들이 염료(꽃) 채취부터 염료제작, 원단 오방색 물들이기, 청사초롱 제작 등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천연염색 작가 정관재씨가 참여해 천연염색

에 대한 기본 이해를 비롯해 실전염색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한다.

이 캠프는 총 3회로 진행되며 1차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2차는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차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각각 2박 3일 동안 진행된다. 모집기간은 6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문의:061-853-5456.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오는 7월 4일~22일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씨 등 예술가 7명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상상캠프’

전남전통공연진흥재단 ‘국악캠프’
한국천연염색협회 ‘꽃물캠프’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상상캠프’

를 연다.

이 캠프는 광주시립미술관과 의재미술관, 대인시장, 무등현대미술관 등지에서 펼쳐지며 예술 체험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다양한 교육으로 꾸며진다.

광주 지역 초·중·고등생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모집 기간은 7월 4일부터 7월 22일까지. 홈페이지(www.gjarte.or.kr) 공지를 통한 이메일 접수. 문의 062-670-576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moviehelic

상무점 **클롬버스시네마** 하남점

1관 정무문:100대1의전설(15세)	1관 정무문:100대1의전설(15세)
2관 위험한 상경례(12세)	2관 엑스맨-퍼스트클래스(12세)
3관 쿵푸팬더2(전체)슈퍼에이트(12세)	3관 씨니(15세)
4관 씨니(15세)	4관 씨니(15세)
5관 엑스맨-퍼스트클래스(12세)	5관 모비딕(15세)
6관 세미의 어드벤처(전체)	6관 그린랜턴-반지의선택(15세)
7-10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이별(15세)	7관 풍산개(18세)
8관 풍산개(18세)	8관 화이트-저주의멜로디(15세)
9관 리뉴얼 오픈 준비중	9관 쿵푸팬더2(전체)
10관 리뉴얼 BIG EVENT	10관 정무문:100대1의전설(15세)
매일매일 피곤이 강해	10관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15세)
리뉴얼오픈기념 무료 상영회(올빼미지 침침)	10관 소중한 날의 꿈(전체)

조조 영화한편 어떠세요? /오남최대주장 / www.cinuso.co.kr

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께 이벤트 팝콘 증정

MEGABOX

M관 풍산개(18세)	최고급관
2관 엑스맨-퍼스트클래스(12세)	
3관 모비딕(15세)	
4관 화이트-저주의멜로디(15세)	
5관 씨니(15세)	
6관 그린랜턴-반지의선택(15세)	
7관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15세)	
8관 정무문:100대1의전설(15세)	
9관 슈퍼에이트(12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치터워, 황금주치터워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CINUS

1관 슈퍼에이트(12세)
2관 쿵푸팬더2(전체)
3관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15세)
4관 엑스맨-퍼스트클래스(12세)
5관 씨니(15세)
6관 화이트-저주의멜로디(15세)
7관 정무문:100대1의전설(15세)
8관 풍산개(18세)

색깔있는 영화선책 • www.cinuso.co.kr

씨너스전대대D(4K)상영!!